

웃는 얼굴로 삼시다

- 방선기 목사 / 2001. 10. 23 -

콜롬비아대학교 교육학 박사, 현 이랜드 사목, 직장 사역연구소(BM)소장)

신학교 학생들에게 백화점에 가서 일일 점원을 하는 과제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 학생 중 하나가 하루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가장 인상적인 것은 들어오는 고객들의 표정이 의외로 모두 굳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건을 사러오면 신이 날 것 같은데 하나같이 다들 표정이 없고 자기한테 말을 걸 때도 아주 통명스럽게 대하더라는 것입니다.

쇼핑을 하러 오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서 그 학생은 자기의 표정도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부터 이제는 좀더 즐거운 표정을 지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 보니 정말 저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표정이 굳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모르는 사람들을 대할 때의 표정을 보면 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사람들도 한국의 인상에 대해서 무표정한 얼굴을 말합니다.

미국에서는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가벼운 미소로 눈인사를 주고받는데 우리에게서는 그것이 영 익숙치 않은 것 같습니다.

“웃는 얼굴로 삼시다!” - 이런 이야기를 하면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그냥 실없이 웃을 수 있느냐고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즐거운 일이 있어야 즐거운 표정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즐거운 표정을 먼저 지으면 점차 즐거운 마음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습지를 가지고 방문교육을 하는 자매가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자매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더라도 일단 문 앞에서 일부러 입을 활짝 열고 밝은 웃음을 짓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집 사람들도 좋아하지만 그 집을 나올 때가 되면 자기도 들어갈 때와는 달리 즐거운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말에도 옛부터 “웃으면 복이 와요” “웃는 얼굴에 참뱀으랴”라는 말이 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일단 먼저 웃어주면 상대방에게 그것이 전달이 되고 자신의 마음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문득 사도 바울이 자신은 감옥에 있으면서 성도들을 향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 4:4)”고 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감옥 속에서 뭐 기쁠 것이 있어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물론 바울은 감옥에서도 성령이 주는 내면적인 기쁨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한 개인이 기뻐하려는 의지가 필요함을 암시한 것 같기도 합니다.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면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러다 보면 자신의 마음에도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보편적인 이미지는 환하게 웃는 얼굴보다는 약간 심각한 표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밝은 얼굴로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아마 성령의 열매들 중에 있는 “희락”을 “웃음” 혹은 “미소”의 열매로 바꾸어 말해도 좋을 지 모르겠습니다.

웃음을 잃어버린 사회에서 웃는 얼굴로 기쁨을 전하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사역입니다. 웃지 않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괜히 실없는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쁨을 전하는 것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라고 생각한다면-그 정도의 희생은 감수하도록 합시다.

이제 길거리에서 지나치는 사람들, 버스나 지하철, 혹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벼운 미소나 밝은 표정을 지어봅시다.

이것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작은 수고일 수 있습니다.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